

휴대전화의 이용으로 인한 개인의 공간인식과 행태의 변화*

황주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미래연구실 실장)

유지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미래연구실 주임연구원)

이동후****

(인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휴대전화의 확산은 '이동 중 연결성'과 '상호작용성'을 증대시킴으로써 공간을 새롭게 구성하고 활성화할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공적 공간을 사사화함으로써 공간 규범을 파괴하는 것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휴대전화의 이용으로 공간의 인식과 행태, 그리고 공적 공간의 역할에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론적 검토와 실증적 조사 분석의 연구 결과, 첫 번째로 살펴본 시공간의 미시적 조정과 다의적 장소성을 통하여 휴대전화의 이용이 고정된 장소의 논리를 벗어나 조정과 활용이 가능한 공간이라는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살펴본 모바일 친구와의 향시적 연결성을 통하여 휴대전화의 이용이 공간적 공존과 분위상의 공유로 공간에서의 사회적 행태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세 번째로 살펴본 공적 공간의 의미와 역할 변화를 통하여 휴대전화의 이용행태는 공간적 특성에 지배적이며, 공간의 의미와 인식 변화에 따른 공간적 규범이 정착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제어: 공적 공간, 시공간의 미시적 조정, 다의적 장소성, 향시적 연결성, 모바일 친구

* 본 연구는 2004년도 정보통신부 IT특정정책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jshwang@kisdi.re.kr

*** jyy@kisdi.re.kr

**** donghoo@incheon.ac.kr

1. 서론

공간적 장벽을 줄이고, 시간의 극복을 통하여 공간을 뛰어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는 끊임없는 기술의 발전을 이루어 왔다(Harvey, 1989, p.232). 인터넷은 가상공간이라는 새로운 공간을 형성하게 해 주었으며, 휴대전화는 시공간적 제약 없이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간이 공간을 관리하고 조정하는데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이로 인하여 특정한 시간과 장소의 결합 하에서만 가능했던 만남의 방식이 깨어지고, 집이나 사무실이라는 양극화된 통신공간이 확대되어 공적 공간의 가능성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공적 구축에서 벗어난 새로운 방식의 사교와 만남이 가능해졌으며, 공공장소에서의 게임이나 방송 청취, 그리고 플래시 몹(flash mob) 등과 같이 기존에 없었던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즉,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보편화’는 단지 상호작용이라는 사회 현상적 변화뿐만 아니라, 생활 영역의 기본단위인 공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전기통신의 발달과정에서 공적 공간이 통신의 영역으로 포함된 것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지만, 휴대전화, 휴대인터넷 등의 발달과 확산으로 이동성과 연결성이 결합됨으로써, 도시 공적 공간(urban physical space)이 다양한 이동통신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잡게 되었기 때문이다. 휴대전화 이용의 50%가 집이나 사무실이 아닌 제3의 장소 또는 이동 중(en route)에 발생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이를 지지한다(Ling & Haddon, 2002). 그리고, 하이버전, 휴대인터넷, DMB, 텔레마틱스 등 유비쿼터스 기술의 확산에 따라 공적 공간의 통신공간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다변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듯, 휴대전화의 일상화되고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고도화가 진전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한 공간의 의미와 행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론연구와 실증분석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그동안의 모바일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사회과학적 연구는 대부분이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휴대전화의 이용행태와 이용요인에 대한 연구(이준호 외, 2004; 전규림, 2004; 이수영, 2003; 성동규 외, 2002;

이인희, 2001; Leung & Wei, 1999; Palen, Salzman & Youngs, 2001),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인간 상호작용에 주목한 연구(송종현, 2004; 배진한, 2003)가 주를 이루었다. 공간과 관련된 연구가 있다면 휴대전화로 인해 공적 공간의 규범이 파괴되고 있음을 다룬 연구(배진한, 2004; 주정민, 2004)가 대부분이며, 휴대전화의 이용 활성화가 미치는 공간의 인식과 행태의 변화와 관련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휴대전화의 확산에 따라 공간에 대한 인식과 행태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으며, 공적 공간의 의미와 역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이론적,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휴대전화의 활용이 공간 인식과 행태, 그리고 공적 공간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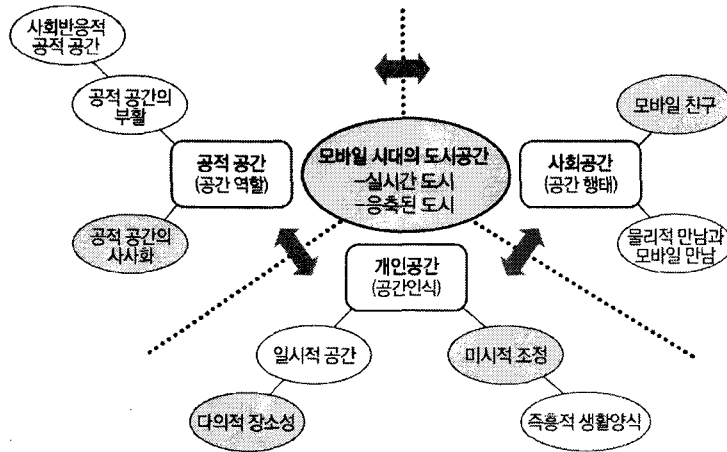
2. 모바일 커뮤니케이션과 공간에 대한 이론적 검토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공간변화와 관련한 기존문헌을 검토하고 이론 분석한 결과로 도출된 주요 개념들을 개인의 공간에 대한 인식(개인공간),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행태(사회공간), 그리고 공간의 의미와 역할(공적 공간)이라는 공간 개념의 기본 틀하에 <그림 1>과 같이, 도식화하였다.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이 개인의 공간인식과 경험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될 수 있다. 첫째는 일상생활의 세부일정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시공간의 미시적 조정(micro-coordination)’이고 둘째는 장소의 논리가 아니라 인간활동의 본질이 공간의 성격을 규정하게 되는 소위 ‘일시적으로 형성된 공간(temporalized space)’의 등장이다. 전자는 개인의 활동을 시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즉흥적 생활양식(extempore lifestyle)’을 가능케 해주는 반면, 후자는 동일한 장소에 있는 사람들도 각자 독특한 방식으로 공간을 경험하게 하여 ‘다의적 장소성(polysemy of place)’을 가능케 한다. 상기 두 가지 개념은 개인의 공간행동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며 특히

다의적 장소성은 공적 공간에서의 휴대전화가 갖는 의미를 변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림 1> 모바일 커뮤니케이션과 공간에 대한 주요 개념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이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사회관계 등 공간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슈가 있는데(이재현, 2004; Geser, 2004; ITU, 2004), 주요 개념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휴대전화를 통해 공간을 초월하여 형성되는 ‘항시적으로 연결된 모바일 친구’의 가능성이고, 둘째는 ‘물리적 만남과 휴대전화를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 간의 관계’이다. 사회공간은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형성되는 것으로 자연히 공적 공간과 깊은 관련을 가진다. 예컨대, 친구사이에 휴대폰을 통해 느끼는 우정이 집단으로 확대될 경우 스마트 몹(smart mob)과 같은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이 공적 공간에 미치는 영향은 ‘공적 공간의 사사화’와 ‘공적 공간의 의미와 역할변화’로 대별될 수 있다. 전자는 1990년대 말부터 휴대전화에 관한 사회과학적 연구의 주요 주제로 다루어져 왔으며, 주로 규범적 차원의 논의와 공적 공간의 공동체적 성격에 주는 영향이 주로 조명되었다. 후자는 휴대전화의 확산으로 역할과 중요성이 감소될 것으로 우려되었던

공적 공간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관한 다양한 개념들과 관련된다.

이하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주요 개념들 중 공적 공간에서의 휴대전화 이용과 보다 관련성이 깊은 네 가지 개념, 시공간의 미시적 조정, 다의적 장소성, 모바일 친구, 그리고 공적 공간의 의미와 역할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이론적 주장은 공적 공간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다는 행위를 무작정 ‘공적 공간의 사사화’로 인한 공간 규범의 파괴로 볼 것이 아니라, 개인 혹은 사회공간에서 나타나고 있는 휴대전화로 인한 공간의 인식과 행태의 변화가 공적 공간에 투영된 결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적 공간에서의 휴대전화 이용행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와 공간의 변화 전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1) 시공간의 미시적 조정

전신과 전화의 발명 이후 통신은 교통으로부터 분리되었으며, 다양한 교통수단의 발달에 따라 거리의 장벽은 낮아진 반면 분리된 활동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게 되었다. 자동차의 등장과 도시의 팽창, 그리고 전화의 조정기능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오늘날 도시사회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등장은 집이나 직장과 같은 고정된 장소에서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통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새로운 조정이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휴대전화의 등장은 이동중인 개인이 통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공간의 미시적 조정을 가능케 한다(Ling & Yttri, 1999, p.6). 구체적으로 약속시간에 늦는 경우에도 사전에 통보할 수 있으며, 이동중인 두 개인이 통신을 통해 점점 하나의 점점으로 근접해 나가는 유연한 만남의 방식도 등장한다. 서로가 약속장소를 잘못 알거나 쉽게 찾지 못하는 경우도 휴대전화로 해결된다.

즉, 사전적 약속에 구애받지 않고 순간순간의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를 변화시키고 시간일정을 재조정할 수 있게 된다. 사전적 조정이 없이도 즉흥적인

정보교환에 의해 새로운 만남과 활동 그리고 일정이 만들어 지는 ‘즉흥적 생활양식(extempore lifestyle)’ 이른바 ‘실시간 생활양식(real-time life style)’이 가능하게 된다(Kopomma, 2002, p.243). 실시간 접촉에서 비롯된 속도의 문화(culture of speed)는 도시의 기존문화, 즉 장소의 문화를 대체하고 있다(Sheller & Urry, 2000 from Kopomma, 2002).

2) 다의적 장소성

근대화는 인간생활에 있어 시간과 공간의 본질을 변화시켰다. 근대화된 시간개념은 더 이상 연속적이지 않으며 특정한 공간적 맥락에 따라 규정된다. 예컨대 아침 9시, 직장이라는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업무적인 시간이 조성되는 반면,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이 시작되며 사람들은 직장의 구내식당과 인근의 식당으로 몰려나온다. 오후 6시가 되면 일제히 퇴근을 하고 그 순간 사적이거나 사회적인 시간이 새로이 시작된다. 기계화된 표준시계의 제작과 유통은 인간이 시간을 그 본연의 궤도에서 이탈시켜 인위적인 톱니바퀴의 시슬로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공간도 마찬가지이다. 근대화 이후 인간은 공간을 보다 다양한 기능으로 분화시켰다.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노동과 주거가 구분되고, 벽 하나를 넘어 식사와 놀이의 공간이 분리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시공간의 근대화가 상호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근대화 사회에서 인간활동은 장소에 의해 최종적으로 규정되며 이로 인해 장소의 논리가 역으로 인간활동의 본질을 규정하는 ‘공간적으로 고착된 시간(spatialized time)’이 사회생활의 주도적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Dholakia & Zwick, 2003). 다시 말해, 인간활동의 시간적 스케줄은 특정 시간대에 할당된 특정한 기능과 그 기능에 맞게 조성된 특정 장소에 의해 규정되어 왔다. 현대 도시를 살아가는 평범한 도시민의 24시(A)는 B와 같이 활동별로 구분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C와 같이 장소로도 표현이 가능하며, A와 B, C의 개별 구성요소 간에는 일대일 대응이 이루어진다.

- A: 7시 → 7~8시 → 8~9시 → 9~12시 → 12~1시 → 1~5시 → 5~8시
 8~9시 → 9~11시 → 11시~
- B: 기상 → 아침식사 → 출근 → 노동 → 점심 → 노동 → 사고 → 귀가 →
 휴식 → 취침
- C: 침실 → 부엌 → 도로 → 사무실 → 구내식당 → 사무실 → 커피숍 → 도로
 → 거실 → 침실

그러나,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등장은 인간활동의 본질이 장소의 논리에 의해 규정되는 ‘공간적으로 고착된 시간(spatialized time)’의 시대에서 인간활동의 본질이 장소를 규정하는 ‘일시적으로 형성된 공간(temporalized space)’(이후, 약어로 ‘일시적 공간’이라 함)의 시대로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았다. 공간은 그 속에 있는 인간의 활동과 상호작용에 의해 장소로 변하게 되는데,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공간의 장소화가 원격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일한 공간에서 서로 다른 장소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레스토랑이라는 식사를 위한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친구와 통화를 하는 순간 그 공간은 식당이라는 장소보다는 나와 통화자간의 사회적 의사소통을 위한 배경장소로 전환된다. 커피숍이라는 친교의 장소도 무선랜을 통해 회사의 메인컴퓨터에 접속하는 그 시간동안에는 일종의 위성 사무실로 변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개인이 어디에 있느냐 보다는 누구와 접속하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보다 더 핵심적인 인간활동의 규정기제가 되고 있으며, 공간과 장소는 더 이상 본질적이고 고유한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고 배경화면으로 물러나고 있다. 그리고 특정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 독자적인 방식으로 ‘일시적 공간’을 경험하게 되며, 서로 다른 장소의식을 갖게 되면서 다의적 장소성(polysemy of place)’이 나타난다. 공적 공간과 관련하여 다의적 장소성은 공동체의 집합적이고 연속적인 장소의 경험을 어렵게 함으로써 공적 공간의 성격을 희석시키는 부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공적 공간의 다양성과 포용성, 그리고 다기능성을 강화시켜 ‘공적 공간의 거실화(living room for the inhabitants)’(Kopomma, 2000, p.18)를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효과

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3) 모바일 친구와의 항시적 연결성

모바일 커뮤니케이션과 즉흥적 생활양식이 확대됨에 따라 사회적 상호작용의 상당부분은 실시간 상호작용과 불확실성에 의해 결정되게 된다. 어떠한 활동이든지 고정된 일정을 벗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 관계의 형성에 있어서도 시간과 공간의 구속보다는 사회작용의 본질이 더 우위를 점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만나게 되는 일상적인 관계 못지않게,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주변 환경(장소)에 관계없이 즉각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관계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다.

코포마(Kopomma, 2000)는 모바일 시대에 개인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규정하는 것은 휴대전화를 통해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한 연락지(points of reference)와 시공간적 맥락을 같이하는 공존자(co-ordinate)라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개인의 개성을 중심으로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소위 네트워크 개인주의(networked individualism)에서는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이 제공하는 통화, 문자, 화상 등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들이 ‘모바일 친구와의 항시적 연결성’을 형성하고 지속시키는 훌륭한 수단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포마(Kopomma, 2002)에 의하면, 휴대전화 이용자들은 모바일 집단에 소속하고 삶으로써 현실세계에서 본인과 생각을 같이 하는 공존자의 부족을 채우고 있다고 한다.

휴대전화는 유선전화와는 달리 접속의 임계비용이 낮다. 달리 표현하면 특정한 시간이 없이 단순한 안부문의나 위치확인, 심지어는 무료함을 없애기 위한 통화도 어렵지 않다. 특히, 휴대전화의 문자메세지(SMS: short message service)는 사회관계 면에서 음성통화와는 차별화되는 특징을 지닌다. 문자메세지는 일상생활 중 통신을 하기 어려운 시간과 장소, 즉 이동 중이거나 회의 중, 혹은 영화관람과 같은 ‘통신의 공백기’에도 연락을 유지할 수 있다. 전면적인 통신이 아니라 배경과 같이 깔아놓는 연결상태의 유지가 가능하여 마치

한 공간에 있으며 금방이라도 부르면 바로 대답할 수 있는 소위 ‘분위기상의 공존(ambient virtual co-presence)’을 가능하게 해 준다는 것이다. 한숨소리, 미소, 눈짓 등 이모티콘이나 간단한 단어를 통해 연결도 단절도 아닌 중간상태의 주변적 배경을 전달함으로써 이러한 가상적인 공존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Ito & Okabe, 2002, pp.13~14). 이토와 오가베(Ito & Okabe, 2002)는 휴대전화를 통해 형성되는 이러한 성격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모바일 친구와의 항시적 연결성(full-time intimate community)’(이후, 약어로 ‘모바일 친구’라 함)로 명명하였다.

4) 공적 공간의 의미와 역할의 변화

정보통신은 지금까지 구분이 분명하였던 여러 영역들 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의 구분이다(Wei & Leung, 1999, pp.12~26). 특히,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등장은 사적인 대화나 업무협의를 공적 공간에서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적 공간의 사적화를 가속화시킨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워크맨은 사적, 주관적, 감정적 공간이 도시의 공적 공간을 채우게 하며 그 결과 공적 공간을 공유된 경험의 공동체가 아닌 사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의 집합체로 변모시켰다는 해석이 대표적인 예이다 (Du Guy, 1997 from Green, 2002, p.283). 휴대전화 역시 공간의 분절화와 개별적 경험을 조장하여(Cooper et al, forthcoming from Green, 2002, p.283) 개개인들을 국지적, 집합적, 그리고 공존적 이해와 활동에서 벗어나게 한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사민주의(私人主義, *privatism*) 매체로서 휴대전화가 확장시킨 개인활동은 공공성과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김평호, 2002). 특히 공공적 성격의 공적 공간에서의 휴대전화 이용은 개인의 통화자유와 방해받지 않을 권리 사이에서 개개인의 인식차이에 의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문제는 사적행위를 얼마나 잘 조절하여 공적 공간을 활용해 나가느냐는 것이다. 도시 공적 공간과 인간활동, 통신기술이 상호작용적으로 그 의미와 역할을 변화시켜나

가고 있기 때문이다.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등장으로 인하여 공적 공간의 역할이 변화하게 될 것이라는 논의는 두 가지 양극적 형태를 보이고 있다. 하나는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등장으로 전통적으로 만남이나 사회적 회동의 장소로서 공적 공간이 지녔던 역할과 중요성이 쇠퇴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만남의 조정이 ‘이동 중 연결성(mobile communicability)’을 통해 이루어짐에 따라 만남의 일차적 장소로서 의미를 지녔던 광장, 공원, 역 등 공적 공간들의 의미가 반감될 수 있다(Witzgall & Burleson, 2000, p.1)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지리학 또는 도시사회학자들을 중심으로 주장되고 있는 휴대전화의 이용이 공적 공간 부활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가정과 직장의 중간지대로, 다시 말해 통신의 사각지대로 인식되었던 공적 공간이 휴대전화에 의해 상호작용과 만남, 그리고 생활이 영위되는 새로운 공간, 즉 제3의 공간으로 새로운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휴대전화, 나아가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발달이 공적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음은 물론 특정지역의 장소성을 높이고, 나아가서는 도시공간 전반의 집약적 활용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Kopomma, 2000, p.2; Kopomma, 2002, p.244).

최근 유비쿼터스 기술의 발달에 따라 공적 공간의 미래상을 새로이 규정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유비쿼터스 기술은 ‘이동성과 지능성 그리고 융합성을 포괄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패러다임’이다. 이러한 기술이 개발되고 적용됨에 따라 공적 공간 및 공적 공간 내 시설에 대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물리공간상 사람들의 활동과 이동에 반응하여 공적 공간을 제어할 수도 있다. ‘사회반응적 공간(socially responsive environment; context aware environment)’이란 유비쿼터스 기술의 환상적인 상호성(fascination of interactivity)과 실시간 응답성(real-time responsiveness)을 다시 물리적 공간에 반영함으로써, 인간의 활동과 이동에 대응하여 적절히 반응하는 공간을 의미한다(Witzgall & Burleson, 2000). 이 개념의 주창자들은 사회반응적 환경이 개개의 이용자를 연결시키는 공유된 정보와 인식을 형성하며 이를 통해 개인의 공간인지뿐만 아니라 이용행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 주장한다.

3. 연구가설 및 연구방법

1) 연구가설 및 연구문제

휴대전화의 초래한 공간적인 양상들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현재 우리의 상황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지, 어떠한 현상을 보이는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휴대전화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증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에 앞서, 각 논의들을 중심으로 연구문제와 연구가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2> 참조).

연구문제 휴대전화의 이용으로 인하여 공간의 인식과 행태, 그리고 공적 공간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는가?

연구가설 1. 휴대전화의 이용이 시공간의 효율적 조정을 가능하게 한다는 공간인식이 크다

연구가설 2. 휴대전화의 이용이 다중적 공간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공간인식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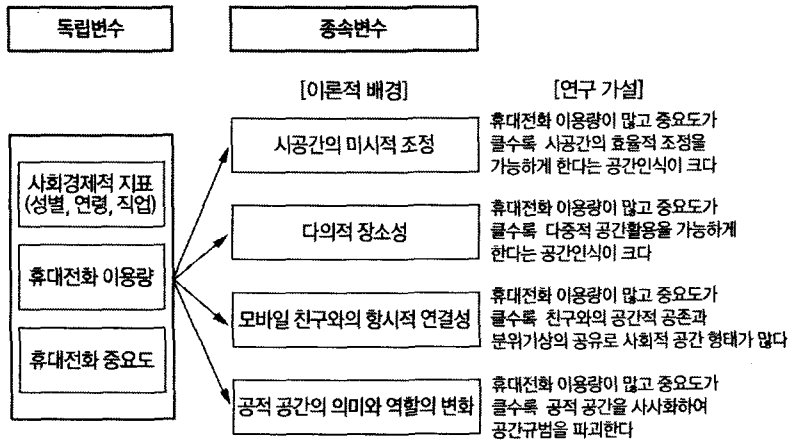
연구가설 3. 휴대전화의 이용이 친구와의 공간적 공존과 분위기 상의 공유로 사회적 공간 행태가 많다

연구가설 4. 휴대전화의 이용이 공적 공간을 사사화하여 공간규범을 파괴한다

실증조사에서는 휴대전화로 인한 공간에 대한 인식과 행태, 그리고 역할이 변화하는지의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휴대전화의 이용이 시공간의 효율적 조정을 가능하게 한다는 공간인식이 크다’는 연구가설하에, 과연

휴대전화의 이용량이 많고 중요도가 클수록 공간의 장소 논리에서 벗어나 시간과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되었다고 인식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로 ‘휴대전화의 이용이 다중적 공간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공간 인식이 크다’는 연구가설하에, 휴대전화의 이용량이 많고 중요도가 클수록 다양한 공간 활용을 경험하고 있다고 여기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세 번째로 ‘휴대전화의 이용이 친구와의 공간적 공존과 분위기 상의 공유로 사회적 공간 행태가 많다’는 연구가설을 세우고, 휴대전화의 이용량이 많고 중요도가 클수록 공간적 공유와 분위기상의 공전을 하는 모바일 친구와의 항시적 연결성이 큰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네 번째로 ‘휴대전화의 이용이 공적 공간을 사사회하여 공간규범을 파괴한다’는 연구가설을 세우고, 휴대전화의 이용량이 많고 중요도가 클수록 공간적 규범 특성에 벗어난 휴대전화 이용행태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림 2> 연구구조 및 연구가설



이론적 개념	연구기설	조사 질의내용	측정방법
시공간의 미시적 조정	휴대전화의 이용이 시공간의 효율적 조정을 가능하게 한다는 공간 인식이 크다	휴대전화 이용 이후, 위치나 장소의 구속에서 자유로워졌다	5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⑤ 매우 그렇다
		휴대전화 이용 이후, 공공장소에서 보내는 시간을 더 의미있게 활용하게 되었다	5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⑤ 매우 그렇다
		휴대전화 이용 이후, 일정과 이동경로 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게 되었다	5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⑤ 매우 그렇다
다의적 장소성	휴대전화의 이용이 다중적 공간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공간 인식이 크다	공원도 휴대전화만 있으면 사무실이 될 수 있다	5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⑤ 매우 그렇다
		사무실도 연인과 통화할 때는 순간 데이트장소가 될 수 있다	5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⑤ 매우 그렇다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동안은 주변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5점 척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⑤ 매우 그렇다
모바일 친구와의 항시적 연결성	휴대전화의 이용이 친구와의 공간적 공존과 분위기상의 공유로 사회적 공간행태가 많다	하루 1회 이상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항상 옆에 있는 듯한 '모바일 친구'	모바일 친구수: ()명
		모바일 친구와의 상호작용량	음성통화건수: ()건 문자메세지건수: ()건
공적 공간의 의미와 역할의 변화	휴대전화의 이용이 공적 공간을 사사화하여 공간규범을 파괴한다	다음 장소에서 휴대전화 이용행태는 어떠한가? ①집, ②사무실, ③강의실/회의실, ④도서관, ⑤극장/공연장, ⑥관공서, ⑦찜질방/노래방, ⑧커피숍/일반식당, ⑨지하철/버스 내, ⑩미술관/박물관, ⑪전시장/대중집회장, ⑫경기장, ⑬쇼핑센터, ⑭대합실, ⑮도로/공원	7점 척도: ①자유통화, ②조심스럽게 계속통화, ③최소통화, ④장소 이동하여 통화, ⑤간단통화 (회의중입니다), ⑥발신지만 확인, ⑦꺼둠

2) 조사 개요

(1) 조사방법

활용성이 보편화되고 생활화된 휴대전화를 통하여 공간의 변화를 살피고자 함에 따라 만 12세 이상의 휴대전화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004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휴대전화 이용율이 가장 높은 SKT(휴대전화 시장점유율 51.3%)의 이용자 구성 즉 성별, 연령별 구성비율에 따라 서울거주자 400명을 대상으로 표본집단을 구성하였다¹⁾.

표본집단의 성별구성은 모집단과 93.5%의 근사유의율을 나타내며, 남자의 경우 모집단 구성비율 보다 0.2% 적은 60.0%이며, 여자의 경우 모집단 구성비율 보다 0.2% 많은 40.0%로 이루어졌다. 연령구성은 모집단구성과 100%의 근사유의율로, 10대가 8.8%, 20대가 24.0%, 30대가 26.0%, 40대가 23.5%, 50대 이상이 17.7%로 구성되었다(<표 1> 참조).

휴대전화 이용과 공간 변화 조사는 2004년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3주간 면접조사로 실시되었다. 휴대전화 이용자 가운데, 응답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에 면접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내용을 질의하고 응답내용을 체크하였다. 직접 면접조사는 대상자 개인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응답 편향(bias)을 없애주고 무응답율도 줄여준다. 또한, 응답내용의 데이터 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불분명한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이 전화와 전자우편을 통해 이루어졌다. 기록된 자료는 통계 패키지 SPSS 12.0을 이용해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1) 표본집단에 있어서 직업별 구성이 적용되지 않은 것은 직업구성 정보가 정확성이 낮아 기준비율로서 적절치 못하기 때문이다. SKT 가입시 필수적인 주민등록번호로 인지가능한 성과 연령 이외에는 부가적인 정보로서 직업정보 또한 SKT의 이용자들로부터 직접 받아지는 정보로 오류가 많다. 무직이 전체의 40.7%나 되고 있어서 직업별 층화를 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직업구성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04년 무선인터넷이용실태조사』의 직업별 구성인 전문관리직 5.2%, 사무직 17.7%, 서비스판매직 25.6%, 생산관리직 11.4%, 학생 19.6%, 주부 16.3%, 무직 4.3%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1> 표본집단의 사회경제 지표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	240	60.0%	직업 ²⁾	화이트칼라	109	27.2%
	여	160	40.0%		블루칼라	77	19.3%
연령**	10대	35	8.8%		자영업	71	17.7%
	20대	96	24.0%		주부	74	18.5%
	30대	104	26.0%		학생	65	16.3%
	40대	94	23.5%		무직/기타	4	1.0%
	50대 이상	71	17.7%	학력	중졸 이하	15	3.7%
결혼유무	기혼	269	67.2%		고졸	170	42.5%
	미혼	131	32.8%		대재 이상	215	53.8%

* 근사유의율: 93.5%

** 근사유의율: 100%

(2) 공적 공간의 구분

본 연구에서 이용하고 있는 공적 공간은 일반적으로 도시의 시설이나 공간 중 일반대중에게 개방된 공공 또는 사적으로 운영되는 시설로 도로, 버스, 지하철, 정류장, 공원 등 공공적 성격의 공간은 물론 카페, 식당, 병원, 도서관, 쇼핑몰 등 대중에게 개방된 기업적 공간을 포함한다. 즉, 공적 공간은 불특정한 사람들이 특정 혹은 불특정한 목적으로 모여서 공공적 성격을 띠는 공간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공간 인식과 행태의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공적 공간을 구분하였다. 공간의 개폐성(내외부성)과 행위의 범위라는 공간적 특성에 따라 공적 공간³⁾을 다음 <표 2>와 같이 구분하여 조사에 적용하였다.

- 2) 직업 분류에 있어서 화이트칼라에는 경영관리직과 전문자유직, 사무기술직이 포함되며, 블루칼라에는 판매서비스직, 기능숙련공, 그리고 일반작업직이 포함되어 있다.
- 3) 공적 공간과 공공장소에 대한 정의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며, 학문영역별이나 사용처별로 각각의 의미가 혼재하여 혹은 차별화되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공적 공간'에 대한 연구이며, 공간과 장소에 대해서 '하나의 장소가 활동을 위한 공간이 되고 그 곳에서 일어나는 활동이 그 장소의 성격을 규정하게 될 때 그 장소는 비로소 의미를 갖기 시작한다(김기호 외, 1990)'고 생각한다. 그래서 연구 전체에

<표 2> 공간특성에 따른 장소 구분⁴⁾

	폐쇄적 공간(내부공간)	개방적 공간(외부공간)
한정적 행위 공간	③ 강의실/회의실	⑩ 미술관/박물관
	④ 도서관	⑪ 전시장/대중집회장
	⑤ 극장/공연장	⑫ 경기장
다양한 행위 공간	⑥ 은행 병원 등 관공서	⑬ 쇼핑센터
	⑦ 찜질방/PC방	⑭ 대합실/터미널/건물로비
	⑧ 커피숍/일반식당	⑮ 도로/공원/광장
	⑨ 지하철 버스 등 교통수단 내	

주: ① 집, ② 사무실은 비교대상이 되는 기준장소로 설정하여 함께 제외됨

(3) 휴대전화 이용량과 중요도

휴대전화의 이용 정도와 중요성은 그 자체로도 휴대전화 이용의 보편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의미를 갖지만, 휴대전화의 이용으로 공간 활용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데 필요한 독립변수이기도 하다.

먼저, 휴대전화의 이용 정도는 하루평균 음성통화의 횟수와 문자메세지의 횟수로 조사하였다. 음성통화의 경우, 통화 건수보다는 통화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더욱 정확한 이용량이 되었을 수도 있으나, 통화목록에서의 시간확인도 평균치 측정이 어렵고 문자메세지와의 비교를 위하여 ‘건수’로 측정기준을 통일하였다. 휴대전화를 어느 정도나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하루평균 음성통화의 수발신 건수 약 15.3건과 문자메세지의 수발신 건수 약 10.0건으로 나타났다. 음성통화량과 문자메세지량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

서는 ‘공정공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사례와 설문조사 등 공적 공간에서의 활동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곳으로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공장소’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 4) 사적 공간인지 공적 공간인지에 대한 공간구분으로 요인분석한 결과, 공간의 개폐성(내외부성)에 상관없이 한정적 행위공간과 다양한 행위 공간으로 분류되었다. 한정적 행위공간은 ③ 강의실/회의실, ④ 도서관, ⑤ 극장/공연장, ⑩ 미술관/박물관, ⑪ 전시장/대중집회장, ⑫ 경기장이며, 다양한 행위 공간은 ⑥ 은행 병원 등 관공서, ⑦ 찜질방/PC방, ⑧ 커피숍/일반식당, ⑨ 지하철 버스 등 교통수단 내, ⑬ 쇼핑센터, ⑭ 대합실/터미널/건물로비, ⑮ 도로/공원/광장이다.

로 분석되어) 휴대전화 이용량을 설명변수로 이용하는데 있어서 음성통화의 수발신양과 문자메세지의 수발신양을 합한 총이용량으로 살펴보기로 하였다. 총이용량에 대한 백분위수(Quartiles)로 구분된 그룹은 이용량이 적은 그룹부터 소량이용, 중하이용, 중상이용, 다량이용의 네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전체적으로 소량이용그룹에서 다량이용그룹으로 갈수록 낮은 연령대의 구성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직업적으로는 소량이용그룹에서 주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된 반면, 다량이용그룹은 화이트칼라와 학생의 상대적 비중이 높았다. 휴대전화 이용량과 성⁵⁾, 휴대전화 이용량과 연령⁶⁾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서 휴대전화 이용량이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표 3> 휴대전화 이용량에 따른 그룹의 사회경제적 구성(%)

사회경제적 그룹		소량이용 (N=109)	중하이용 (N=91)	중상이용 (N=100)	다량이용 (N=100)	기준
이용량 (건수)		8.0건	15.2건	24.7건	56.2건	
성별 (100%)	남	55.0%	52.7%	63.0%	69.0%	60.0%
	녀	45.0%	47.3%	37.0%	31.0%	40.0%
연령 (100%)	10대	4.6%	3.3%	6.0%	21.0%	8.8%
	20대	11.0%	22.0%	33.0%	31.0%	24.0%
	30대	22.9%	37.4%	27.0%	18.0%	26.0%
	40대	31.2%	18.7%	26.0%	17.0%	23.5%
	50대 이상	30.3%	18.7%	8.0%	13.0%	17.7%
직업 (100%)	화이트 칼라	20.2%	24.2%	34.0%	31.0%	27.2%
	블루칼라	14.7%	23.1%	19.0%	21.0%	19.3%
	자영업	27.5%	12.1%	12.0%	18.0%	17.7%
	가정주부	30.3%	28.6%	15.0%	0.0%	18.5%
	학생	4.6%	12.1%	19.0%	30.0%	16.3%
	무직/기타	2.8%	0.0%	1.0%	0.0%	1.0%

- 5) 상관관계 분석에 있어서 양자간 Person 상관계수 0.190이며 유의확률 0.007임
- 6) 상관관계 분석에 있어서 양자간 Person 상관계수 -0.118이며 유의확률 0.018임
- 7) 상관관계 분석에 있어서 양자간 Person 상관계수 -0.312이며 유의확률 0.000임

<표 4> 휴대전화 중요도에 따른 그룹의 사회경제적 구성(%)

사회경제적 그룹		저중요도 (N=115)	중하중요도 (N=89)	중상중요도 (N=103)	고중요도 (N=93)	기준
중요도 평균값 (5점 척도 기준)		2.4	2.9	3.3	4.0	
성별 (100%)	남	54.8%	62.9%	68.0%	54.8%	60.0%
	녀	45.2%	37.1%	32.0%	45.2%	40.0%
연령 (100%)	10대	4.3%	6.7%	9.7%	15.1%	8.8%
	20대	18.3%	21.3%	20.4%	37.6%	24.0%
	30대	32.2%	22.5%	26.2%	21.5%	26.0%
	40대	18.3%	31.5%	28.2%	17.2%	23.5%
	50대 이상	27.0%	18.0%	15.5%	8.6%	17.7%
직업 (100%)	화이트칼라	25.2%	28.1%	28.2%	28.0%	27.2%
	블루칼라	21.7%	12.4%	24.3%	17.2%	19.3%
	자영업	18.3%	23.6%	16.5%	12.9%	17.7%
	가정주부	25.2%	18.0%	16.5%	12.9%	18.5%
	학생	7.0%	16.9%	14.6%	29.0%	16.3%
	무직/기타	2.6%	1.1%	0.0%	0.0%	1.0%

다음으로, 휴대전화 이용량이 휴대전화의 보편화를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면, 휴대전화 중요도는 휴대전화가 일상생활 속으로 어느 정도나 침투하여 일상화되었는지를 측정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일례로 보험설계사는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확보가 업무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휴대전화 이용에 익숙치 않은 50대의 개인이라도 휴대전화가 일상에서 중요하게 되는 경우와 같이 중요도는 휴대전화의 구입동기는 물론 사회경제적 배경과도 긴밀히 관련된다. 휴대전화의 중요도는 일의 효율적 처리, 사회적 관계유지, 가정생활 영위, 정보 검색, 온라인거래, 오락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 이용자가 생각하고 중요도를 5단계 리커트척도(Likert scale)로 조사하였다. 각 중요도의 평균값에 대한 백분위수(Quartiles)로 구분된 휴대전화 중요도그룹은 평균값에 따라 가장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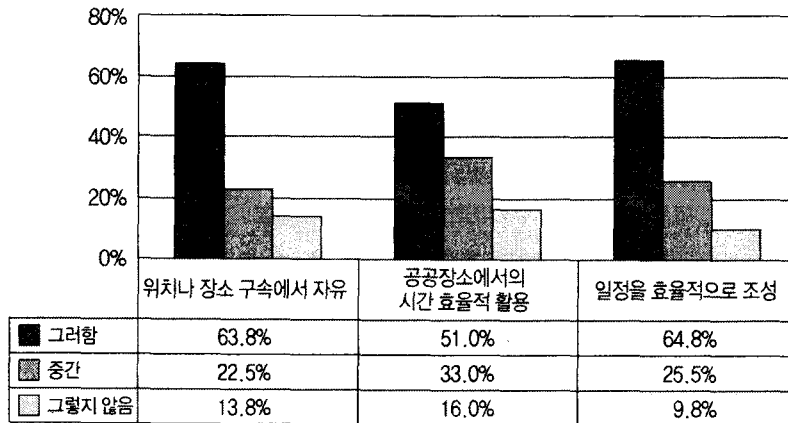
도가 적은 그룹부터 저중요도, 중하중요도, 중상중요도, 고중요도의 네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전체적으로 휴대전화 중요도는 사회경제적인 지표에 따른 차별적인 경향은 찾아볼 수 없었다. 단, 휴대전화의 이용량과 상관관계를 보이며,⁸⁾ 휴대전화가 중요할수록 이용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4. 연구결과

1) 시공간의 미시적 조정

휴대전화의 이용으로 인해 시공간의 활용과 효율의 변화 정도를 5단계의 리커트척도로 답하게 한 결과, 50% 이상이 긍정적인 반응(‘매우 그러함’과 ‘그러함’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보였다(<그림 3> 참조).

<그림 3> 휴대전화로 인한 시공간의 미시적 조정



8) 상관관계 분석에 있어서 양자간 Person 상관계수 0.186이며 유의확률 0.000임

휴대전화로 인한 ‘시공간의 미시적 조정’으로 위치나 장소의 구속에서 자유로워지고, 공적 공간에서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한 일정의 효율적 조정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63.8%, 51.0%, 64.8%로 높게 조사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공간 인식은 휴대전화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높게 나타났다. 즉, 휴대전화 중요도에 따른 시공간의 미시적 조정으로 위치나 장소의 구속에서의 자유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동의를 하고 있어서 중요도에 따른 특별한 양상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공공장소에서 보내는 시간의 의미있는 활용과 일정의 효율적 조정 등에 대해서 저중요도 그룹에서는 각각 42.6%와 59.1%이지만,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아져 고중요도그룹에서는 각각 59.1%와 73.1%이었다(<표 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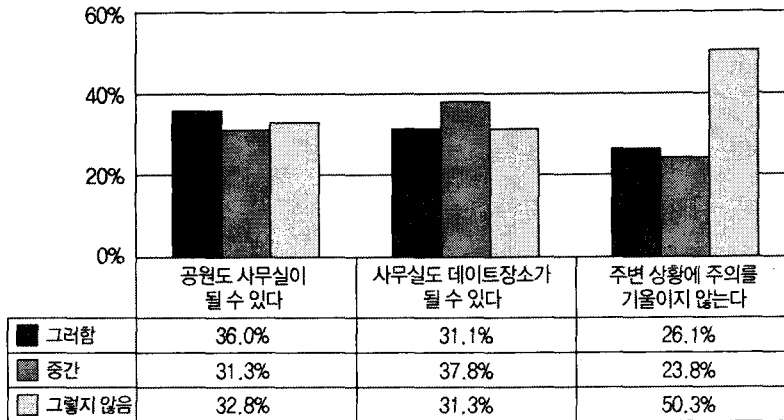
<표 5> 휴대전화로 인한 시공간의 미시적 조정과 설명변수

	이용량	중요도	사회경제적 지표		
			성별	연령	직업
위치나 장소의 구속에서 자유로워졌다	-	-중요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만 특별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아님	-	-	-
공공장소에서 보내는 시간을 더 의미있게 활용하게 되었다	-	-중요도가 높을수록 공적 공간의 효율적 활용 -5점척도로 3.2(저중요도): 3.3(중하중요도): 3.4(중상중요도): 3.7(고중요도) (anova유의도 0.000)	-	-	-
일정과 이동경로 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게 되었다	-	-중요도가 높을수록 시간의 효율적 활용 -5점척도로 3.5(저중요도): 3.6(중하중요도): 3.7(중상중요도): 4.0(고중요도) (anova유의도 0.005)	-	-	-

2) 다의적 장소성

한정된 장소에 있으면서도 휴대전화를 통한 네트워크 형성으로 다의적 장소성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공공장소의 공적업무공간화나 사적 공간화에 대해서 각각 36.0%와 31.1%의 사람들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일시적 공간의 경험정도는 높지 않았다(<그림 4> 참조).

<그림 4> 휴대전화로 인한 다의적 장소성 경험



휴대전화를 통한 일시적 공간의 경험은 이용량이나 사회경제적 지표에 따른 차이보다는 중요도에 따라 차이가 훨씬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시적 공간 경험에 있어 휴대전화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일시적 공간에 대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중요도그룹의 경우 좀 더 큰 차이를 보인다(<표 6> 참조).

그리고 휴대전화로 인한 '다의적 장소성'에 관한 경험에서 사회경제적 지표와 관련하여서는 연령이 가장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20대가 가장 높은 경험도를 보인다는 점이다. 중요도에 따라서는 저중요도그룹이 각각 33.1%, 27.9%에 불과한 반면, 고중요도그룹은 49.4%, 48.4%으로 나타

나, 휴대전화의 중요도를 높게 평가할수록 필요할 시에는 공공장소나 업무공간을 사적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휴대전화로 인한 다의적 장소성 경험과 설명변수

	이용량	중요도	사회경제적 지표		
			성별	연령	직업
공원도 사무실이 될 수 있다	-이용량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만 특별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아님	-중요도가 높을수록 공적 공간의 업무공간화 가능 -5점척도로 2.8(저중요도): 2.8(중하중요도): 3.0(중상중요도): 3.3(고중요도) (anova유의도 0.001)	-	-	-
사무실도 데이트 장소가 될 수 있다	-	-중요도가 높을수록 공적 공간의 사적 공간화 가능 -5점척도로 2.6(저중요도): 2.8(중하중요도): 2.9(중상중요도): 3.3(고중요도) (anova유의도 0.006)	-	-20대 이하가 30대 이상과 차이를 보이며 사적 공간화 높음 -5점척도로 3.1(10대): 3.2(20대): 2.9(30대): 2.7(40대): 2.7(50대) (anova유의도 0.001)	-
주변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	-중요도가 높을수록 주변인식이 떨어짐 -5점척도로 2.4(저중요도): 2.6(중하중요도): 2.6(중상중요도): 2.9(고중요도) (anova유의도 0.002)	-	-20대 이하가 30대 이상과 차이를 보이며 주변인식이 떨어짐 -5점척도로 2.8(10대): 2.8(20대): 2.5(30대): 2.5(40대): 2.5(50대) (anova유의도 0.080)	-무직과 기타 집단이 주변인식이 떨어짐(0.015)

3) 모바일 친구와의 항시적 연결성

휴대전화를 통해서 함께 있는 것과 같이 공존감을 주는 사람들간에 형성된 사회네트워크를 ‘모바일 친구’라 하여 하루에 1회 이상 통화나 문자를 주고받는 사람의 수와 이들 간의 상호작용량을 알아보았다. 하루에 음성통화와 문자메세지를 1회 이상 교환하는 사람은 각각 3.0명과 1.6명으로, 하루에 휴대전화로 1회 이상 커뮤니케이션하는 사람은 4.6명이다. 그러나, 엄격히 이야기하면 하루에 1회 이상 음성통화도 하고 문자메세지도 하는 사람은 각각 음성통화 상대자와 문자메세지 상대자로 계산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루에 1회 이상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은 4.6명 이하일 것이다.

하루 1회 이상 커뮤니케이션하면서 항상 옆에 있는 듯한 ‘모바일 친구’의 존재는 평균 2명 정도로, 이 사람과 하루 평균 최대 4.4건(음성통화 2.4건, 문자메세지 2.0건)의 상호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친구’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은 전체의 11.8%이며, ‘모바일 친구’는 최대 6명까지 구성되고 있다. 그리고 ‘모바일 친구’와 하루 최대 52건 상호작용하기도 한다.

‘모바일 친구’의 형성 및 ‘모바일 친구’와의 사회적 상호작용량은 중요도에 의해 차별적 경향을 보이지는 않았으며, 이용량과 연령에 따른 차이를 나타냈다. ‘모바일 친구’에 있어서 소량이용그룹은 1.5명인 반면, 이용정도가 높을수록 많아져서 다량이용그룹은 2.6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휴대전화 이용량에 따라 사회적 관계성이 긴밀해졌다고 할 수 있으나, 역으로 생각하면 사회적 관계가 많은 사람이 휴대전화 이용량이 많다고 해석할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진다(<표 7> 참조).

<표 7> 모바일 친구의 형성과 설명변수

	이용량	중요도	사회경제적 지표		
			성별	연령	직업
모바일 친구 수	-이용량이 많을수록 모바일 친구 수 많음 -항상 옆에 있다고 느껴지는 상대자수 1.5(소량이용): 1.9(중저이용): 2.3(중상이용): 2.6(다량이용) (anova유의도 0.000)	-중요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만 특별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아님 -고중요도 집단의 항상 옆에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 수 많음(0.000)	-여성의 모바일 친구 수 많음 항상 옆에 있다고 느껴지는 상대자수 1.9(남): 2.3(여) (anova유의도 0.002)	-연령이 낮을수록 모바일 친구 수 많음 -항상 옆에 있다고 느껴지는 상대자수 2.3(10대): 2.3(20대): 1.9(30대): 1.9(40대): 1.8(50대) (anova유의도 0.021)	-학생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모바일 친구 수 많음 (0.005)
모바일 친구와의 상호 작용량	-이용량이 많을수록 모바일 친구 수 많음 -항상 옆에 있는 친구와의 상호 작용량 2.8(소량이용): 3.1(중저이용): 4.6(중상이용): 7.0(다량이용) (anova유의도 0.000)	-	-	-연령이 낮을수록 모바일 친구 수 많음 -항상 옆에 있는 친구와의 상호작용량 8.7(10대): 5.7(20대): 3.5(30대): 3.5(40대): 2.5(50대) (anova유의도 0.021)	-학생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모바일 친구와의 상호작용량 많음(0.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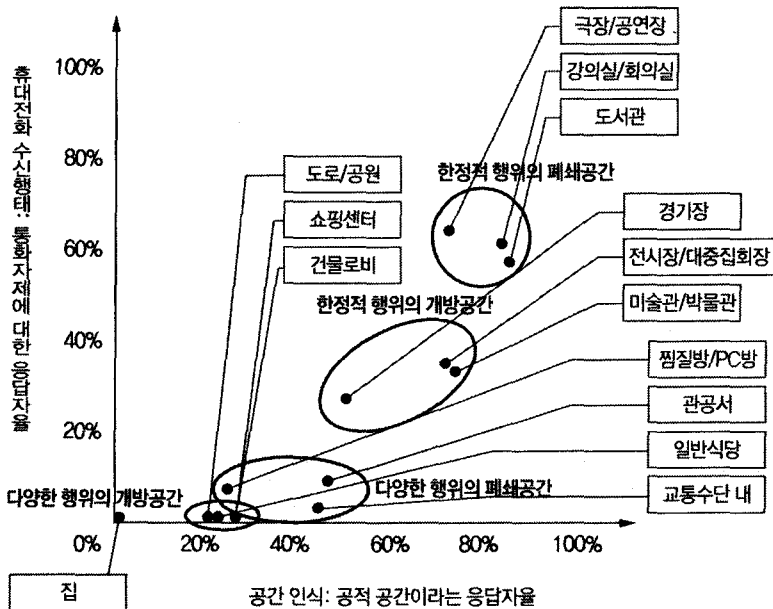
4) 공적 공간의 의미와 역할의 변화

공적 공간의 공간적 특성과 휴대전화의 이용 정도 및 중요도에 따른 휴대전화 이용행태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공적 공간에 대한 인식과 행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휴대전화의 이용행태는 Plant(2001, p.16)가 이야기한 휴대전화 이용행태인 '① 자리 피하기(flight), ② 전화하는 동안 잠시 대화 중단하기(suspension), ③ 상대방을 무시하고 그냥 전화받기(persistence)'

를 보다 세분하여 ‘① 자유롭게 통화, ② 주위를 의식하면서 조심스럽게 계속 통화, ③ 주요 통화인지 확인 후 최소통화, ④ 장소를 이동하여 통화, ⑤ 연결 후 간단통화 (‘관람중입니다’하면서 바로 끊음), ⑥ 확인만 하며 통화는 하지 않음, ⑦ 꺼둠’으로 나누었다.

먼저, 공적 공간의 유형을 염두에 두고, 각 공간에 대한 인식과 그 공간에서의 휴대전화의 관계성을 분석한 결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이용행태가 공간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며, 특히나 한정적 행위 공간과 다양한 행위공간으로 나뉘어 차별적 양상을 보였다. 한정적 행위공간으로 인식된 공간에서는 휴대전화의 이용을 자제하며, 개방적 행위공간으로 인식된 공간에서는 자유로운 통화를 하는 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5> 참조).

<그림 5> 공간인식과 그 특성에 따른 이용행태



회의실과 도서관, 공연장 등의 한정적 행위가 요구되는 폐쇄적 공간은 공적 공간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었으며, 각각 61.3%, 55.0%, 64.5%가 휴대전화를 받지 않거나 꺼두는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물관, 전시장, 경기장 등의 한정적 행위가 요구되는 개방적인 공간에서는 32.6%, 34.8%, 25.8%가 휴대전화를 받지 않거나 꺼두며, 36.6%, 37.3%, 34.1%가 다른 장소를 이용하거나 ‘지금은 관람중입니다’라는 간단한 통화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는 다르게 관공서, PC방, 일반식당, 교통수단 등의 다양한 행위가 가능한 폐쇄적 공간은 공적 공간이라는 인식이 그리 높지 않으며, 이들은 오히려 자유롭게 통화를 한다는 응답이 각각 32.0%, 47.3%, 76.8%, 72.6%로 나타났다. 일반식당과 교통수단은 자유통화를 하는 편이나, 관공서와 PC방은 주변상황에 따라 각각 38.6%와 28.3%는 간단한 통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쇼핑센터, 대합실 등의 건물로비, 도로나 공원 등의 다양한 행위가 가능한 개방적 공간에서는 각각 72.3%, 80.8%, 92.6%의 응답자들이 통화를 자유롭게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8> 참조).

다양한 행위공간과 같이, 공적 공간이라는 인식이 높지 않은 것은 사적 공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에 대한 공적인 정도가 높지 않음을 의미한다⁹⁾. 공적 공간의 공공성 인식에 따라서 공적 규범의 허용정도가 차이를 보이며, 휴대전화의 이용행태도 공간의 공적인 정도에 따라서 통화를 자제하거나 자유롭게 통화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휴대전화의 이용이 공적 공간의 사사화로 공적 공간의 규범을 파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초래하지만, <그림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휴대전화 이용행태는 공간적 특성에 지배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다양한 행위 공간에서는 공간특성상 자유통화 경향이 강하여서 이용 정도나 중요도에 따라 차별적 양상이 나타나지 않는 반면, 한정적 행위 공간에서는 휴대전화 이용행태가 휴대전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룹일수록 자유통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 공적 공간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아 반공적 공간이라 할 수 있다.

<표 8> 공적 공간의 유형별 공간인식과 그 특성에 따른 이용행태와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공간 특성	개별공간	공적 공간 인식과 이용행태의 상관관계 분석	공적 공간 인식 (응답자율)	휴대전화 이용행태	
				자유통화 (응답자율)	통화자제 (응답자율)
참조공간	집	0.110*	2.0%	96.0%	0.5%
	사무실	0.227**	74.5%	52.0%	9.8%
한정적 행위의	강의실/회의실	0.318**	84.5%	7.3%	61.3%
	도서관	0.310**	84.8%	6.3%	55.0%
폐쇄공간	극장/공연장	0.244**	73.0%	6.5%	64.5%
한정적 행위의	미술관/박물관	0.281**	76.5%	13.5%	32.5%
	전시장/대중집회장	0.400**	74.3%	12.5%	34.8%
개방공간	경기장	0.417**	55.5%	24.3%	25.8%
다양한 행위의 폐쇄공간	관공서	0.180**	48.3%	32.0%	9.3%
	찜질방/PC방	0.040	25.3%	47.3%	6.8%
	커피숍/일반식당	0.248**	23.8%	76.8%	0.3%
	교통수단 내	0.203**	44.8%	72.5%	1.8%
다양한 행위의 개방공간	쇼핑센터	0.227**	26.0%	72.3%	0.5%
	대합실/건물로비	0.178**	25.8%	80.8%	0.5%
	도로/공원/광장	0.182**	21.8%	92.5%	0.8%

* 상관계수 0.05수준(양쪽)에서 유의
 ** 상관계수 0.01수준(양쪽)에서 유의

<표 9> 공간특성별 휴대전화 이용행태와 설명변수

	이용량	중요도	사회경제적 지표		
			성별	연령	직업
한정적 행위의 폐쇄공간 (강의실/회의실)	-	-중요도가 높을수록 자유통화 -한정적 행위의 폐쇄 공간에서의 휴대전화 이용행태 3.6(저중요도): 3.5(중저중요도): 3.4(중상중요도): 3.1(고중요도) (anova유의도 0.000)	-	-	-
한정적 행위의 개방공간 (미술관/박물관)	-	-중요도가 높을수록 자유통화 -한정적 행위의 개방 공간에서의 휴대전화 이용행태 3.1(저중요도): 3.0(중저중요도): 3.0(중상중요도): 2.6(고중요도) (anova유의도 0.001)	-	-	-
다양한 행위의 폐쇄공간 (교통수단 내)	이용량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만 특별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아님	-	-	-	-
다양한 행위의 개방공간 (도로/공원/광장)	-	-	-	-	-

공적 공간의 유형에 따른 규제방식에 있어서는 한정적 행위공간에서는 휴대전화 통화의 규제가 요구되고 있으며, 시민단체나 이용자의 자율적 규제를 필요로 한다. 다양한 행위공간에서는 규제보다는 개인의 판단에 따른 통화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표 10> 참조).

<표 10> 공간특성별 휴대전화 통화의 규제방식

	통화 자유	개인 판단	자율 규제	법률 규제
한정적 행위의 폐쇄공간 (강의실/회의실)	0.3	26.0	64.8	9.0
한정적 행위의 개방공간 (전시장/집회장)	0.8	35.3	58.8	5.3
다양한 행위의 폐쇄공간 (지하철/버스 내)	16.0	61.5	21.0	1.5
다양한 행위의 개방공간 (도로/공원 등)	46.8	42.8	10.5	0.0

5. 결론

본 연구는 휴대전화의 발달로 인한 공간 변화의 단면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휴대전화로 인한 시공간의 미시적 조정, 다의적 장소성, 모바일 친구, 그리고 공적 공간의 역할변화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론적 검토를 통해 도출한 주요 연구가설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한국의 상황에서도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첫째, 휴대전화로 인한 시공간의 미시적 조정을 살펴본 결과, 물리적인 장소 구속성에서 벗어나서(63.8%) ‘활용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개념을 강화 시킴으로써 일정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게 되었으며(64.8%), 공공장소에서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51.0%) 되었다는데 높게 나타났다. 둘째, 휴대전화의 이용에 따른 일시적 공간 형성으로 다의적 장소성의 경험을 파악한 결과, 공적 공간이 다른 공적 공간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공원도 사무실화 될 수 있다, 36.0%), 공적 공간이 사적 공간화 될 수도 있다는데(사무실도 데이트장소가 될 수 있다, 31.1%), 적지 않은 사람들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휴대전화로 인한 사회관계와 사회공간의 구성을 살펴본 결과, 휴대전화 이용자들 중 대부분(89.0%)는 하루 1회 이상 음성통화나 문자메시지를 교환하면서 항상 옆에 있는 것 같은 친근감을 느끼는 소위 ‘모바일 친구’를

적어도 한명 이상 갖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은 평균 2.3명의 모바일 친구들을 갖고 있으며, 가장 교신수가 높은 친구의 경우 하루 약 4.4건의 교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휴대전화를 통한 모바일 공간행태가 공적 공간의 인식과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공적 공간에서의 휴대전화 이용행태가 공적 공간의 공간 특성과 밀접히 관련되어 나타났는데 ‘한정적 행위공간’에서의 통화자제는 61.3%에 달하는 반면, ‘다양한 행위공간’에 있어서는 0.8%만이 통화를 자제하고 있었다. 다만, 한정적 행위의 공간에서는 휴대전화의 중요도에 따라 공간 제약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통화를 하려는 새로운 양상이 포착되었다.

요컨대, 첫 번째로 살펴본 시공간의 미시적 조정과 다의적 장소성을 통하여 휴대전화의 이용이 고정된 장소의 논리를 벗어나 조정과 활용이 가능한 공간이라는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살펴본 모바일 친구와의 항시적 연결성을 통하여 휴대전화의 이용이 공간적 공존과 분위상의 공유로 공간에서의 사회적 행태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세 번째로 살펴본 공적 공간의 의미와 역할 변화를 통하여 휴대전화의 이용행태는 공간적 특성에 지배적이며, 공간의 의미와 인식 변화에 따른 공간적 규범이 정착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휴대전화를 통한 공간의 확장은 주로 공적 공간에서 이루어졌고, 공적 공간에 대한 인식과 행위를 변화시키고 있었다. 그리고 무분별하여 보이는 휴대전화의 이용은 공간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정적 행위가 요구되는 공간이라 인식되어지는 곳에서는 가능한 한 휴대전화의 이용을 자제하는 편이나, 다양한 행위가 가능하다고 인식되어지는 곳에서는 자유로운 통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휴대전화 이용행태는 공간적 특성에 지배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현재 언급되고 있는 공간에 따른 휴대전화 이용행태의 혼란은 공간의 의미와 인식의 변화에 따른 과도기적 현상으로 휴대전화가 일상화되고 공적 공간에서의 휴대전화 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일반적인 활용행태가 정착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표 11> 연구가설에 따른 연구 결과

연구가설	연구결론	가설 검증 결과
휴대전화의 이용으로 시공간의 효율적 조정이 가능하게 한다	휴대전화의 이용이 시공간의 미시적 조정을 가능하게 하며, 휴대전화의 중요도가 클수록 시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더욱 가능하게 하고 공간 인식을 확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가설 채택
휴대전화의 이용이 다중적 공간 활용이 가능하게 한다는 공간인식이 크다	휴대전화로 인한 다의적 장소성 경험은 많지 않으나, 휴대전화의 중요도가 클수록 다의적 장소성 경험이 높게 나타나 휴대전화의 이용이 다의적 장소성을 강화하여 공간 활용을 확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가설 채택
휴대전화의 이용이 친구와의 공간적 공존과 분위기 상의 공유로 사회적 공간 행태가 많다	휴대전화의 이용이 친구와의 항시적 연결성을 유지하게 하며, 휴대전화의 사용과 모바일 친구수 사이에는 높은 정의 상관관계가 있어서 항시적 연결성을 긴밀하게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가설 채택
휴대전화의 이용이 공적 공간을 사사회하여 공간규범을 파괴한다	휴대전화 이용행태는 공간적 특성에 지배적이며, 현재 휴대전화 이용행태의 혼란은 공간의 의미와 인식의 변화에 따른 과도기적 현상으로 분석된다	가설 기각

그리고 공적 공간에서의 휴대전화 이용에 대한 규범방식 또한 한정적 행위만 가능한 공적 공간에서는 자율규제로, 다기능적 행위가 가능한 공적 공간에서는 개인의 판단에 따라 규제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생각이다. 휴대전화로 인한 공적 공간에서의 다의적 활동으로 공적 공간의 의미는 새롭게 받아들여지고 지속적으로 발달되고 있는 모바일 통신서비스에 의하여 공적 공간에 대한 수요와 기대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휴대전화의 이용으로 인한 공적 공간의 긍정적 변화에 대한 수용과 인정은 동일한 경향을 보이며, 이용량이나 중요도, 사회경제적 지표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정책적인 함의를 크게 두가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휴대전화는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매개체가 아니라 이용자 삶의 양식을 변화시키는 기제가 되고 있으므로, 일상생활에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측정과 고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현재 정보화추진의 보완적 도구로서 고려되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수용과 활용에 대한 지표와 데이터는 향후 정보화정책의 방향을 점검하고 수정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두 번째로, 유비쿼터스 등 정보통신의 흐름이 유선에서 무선으로 넘어가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IT강국으로서 제2의 도약을 꿈꾸기 위해서는 한국적 상황 및 사회에 적합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휴대전화의 이용행태와 인식이 삶의 양식 전체에 얼마나,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다시금 휴대전화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정책에 의해 한국사회 전반의 구조와 생활행태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이동성, 휴대성 등으로 인하여 공간기술화(space information technology)되어가고 있으며, 기술과 공간, 인간의 삶은 상호작용적인 순환연결고리를 형성하며 진화해 나가고 있다. 공간환경에 중점을 둔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정책은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갈 중요 포인트가 될 것이다.

Ⅰ 참고문헌

- 마셜 맥루언 (2002). 『미디어의 이해: 인간의 확장』. 김성기·이한우 역. 민음사 (원저 출판년도 1964).
- 배진한 (2004). 공적공간에서의 휴대전화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Mobile Communication and Social Change』. 한국언론학회 국제 세미나 자료집.

- 성동규·조윤경 (2002). 이동전화 이용자의 집단적 특징에 따른 이용 유형 연구, 『한국언론학보』.
- 송종현 (2003). 『휴대전화 이용동기와 행태가 사회적 관계 및 규범성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 박사학위 논문.
- 안영진 (2004). 모바일시대 공적공간분석을 위한 사회공간 이해. KISDI 내부회의 자료.
- 이수영 (2003). 이동전화 이용에 관한 연구: 음성통화서비스와 문자서비스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 이인희 (2001). 대학생 집단의 휴대폰 이용동기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15(3).
- 이준호 외 (2004). 청소년들의 이동전화 이용행태와 사회심리적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27.
- 이재현 (2004). 『모바일 미디어와 모바일 사회』. 커뮤니케이션북스.
- 이진경 (1997).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 푸른숲.
- 주정민 (2004). 모바일 미디어의 이용과 공적영역의 사적영역화. 『Mobile Communication and Social Change』. 한국언론학회 국제 세미나 자료집.
- 정보통신부 (2005). 이동전화가입자수. www.mic.go.kr.
- 최병두 (2002). 『근대적 공간의 한계』. 삼인.
- 프랜시스 케언로스 (1999). 『거리의 소멸, 디지털 혁명』. 세종서적(원저 출판년도 1997).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4). 『2004년 무선인터넷이용실태조사』.
- Adriana de Souza e Silva (2003). "From MUDs as space to space as a MUDs - a study about cell phones." In: Proceedings of the Life by Design: Everyday Digital Culture Conference. Irvine, CA: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UCI):115-123 [http://www.humanities.uci.edu/visualstudies/everyday/papers.html].
- Anthony M. Townsend (2000). Life in the real-time city: mobile telephones and urban metabolism. Journal of Urban Technology, (7)2, 85-104.
- _____ (2001). The Science of Location: Why the Wireless Development Community Needs Geography, Urban Planning, and Architecture.
- _____ (2001). Mobile Computing and Communicaitons: New Interactions Between Information Architecture and Infrastructure Use.
- Burleson, W. and Witzgall, B. (2002). "Dynamic Physical Architecture," InterSymp2002,

14th.

- Geser, H. (2004). Towards a Sociological Theory of the Mobile Phone, Release 3.0.
- Graham, S., & Marvin, S. (1996). *Telecommunications and the city*. London: Routledge.
- Green, Nicola., Harper, Richard H., Murtagh, Gerald & Cooper, Geoff (2001). Configuring the Mobile User: Sociological and Industry Views, Personal and Ubiquitous Computing, 5: 2, 146-156.
- Green, N. (2002). On the Move: Technology, Mobility, and the Mediation of Social Time and Space, *The Information Society*, 18:281-292.
- Harvey, D. (1989).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Oxford: Blackwell.
- Ito, Mizuko and Okabe, Daisuke (2003). "Mobile Phones, Japanese Youth, and the Re-Placement of Social Contact." in *Front Stage - Back Stage: Mobile Communication and the Renegotiation of the Public Sphere*, edited by R. Ling. Grimstad, Norway.
- ITU (2004). Social and Human Considerations for a More Mobile World, Background Paper.
- Kopomaa, T. (2000). Speaking mobile: the city in your pocket, YKT's electronic publications, available at <http://www.hut.fi/Yksikot/YKT/julkaisu/mobile.htm>.
- ____ (2002). Mobile phones, place-centered communication and neo-community, *Interface*.
- Leung, L., & Wei, R (1999). Who are the mobile phone have-nots? *New Media & Society*, 1(2), 209-226.
- Leysia Palen, Marilyn Salzman & Ed Young (2000). *Going Wireless: Behavior & Practice of New Mobile Phone Users*, Philadelphia, PA.
- Ling, Rich and Yttri, Birgitte (1999). "Nobody sits at home and waits for the telephone to ring:" Micro and hyper-coordination through the use of the mobile telephone, Presented at Perpetual Contact Workshop, December, Rutgers University, New Brunswick, New Jersey.
- Nokia (2002). Are you ready for multimedia messaging service: an evolutionary approach to implementing MMS. Nokia [On-line]. Available: www.nokia.com.
- Palen, L., Salzman, M., & Youngs, E. (2001). Discovery and Integration of Mobile Communications in Everyday Life, *Personal and Ubiquitous Computing*, 5:

2, 109-122.

- Plant, Sadie (2001). on the mobile: the effects of mobile telephones on social and individual life, Research Report submitted to Motorola.
- Rich Ling and Leslie Haddon (2001). Mobile telephony, mobility and the coordination of everyday life, presented at "Machines that become us" conference at Rutgers University.
- Rich Ling (2002). The social juxtaposition of mobile telephone conversations and public spaces.
- Sadie Plant (2001). on the mobile: the effects of mobile telephones on social and individual life, Research Report submitted to Motorola.
- Sheller, Mimi (2004). Mobile Publics: Beyond the Network Perspective,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22: 1:39-52.
- Sheller, M. and Urry, J. (2000). 'The City and the Car',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Vol. 24, No. 4, pp. 737-57.
- Swingedouw, E. (1993). Communication, mobility and the struggle for power over space, In G. Gianopoulos & A. Gillespie (Eds.),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innovation in Europe* (pp.305-325), London: Bellhaven Press.
- Wei, R. and L. Leung (1999). Blurring public and private behaviors in public space: policy challenges in the use and improper use of the cell phone, *Telematics and Informatics*, 16: 11-26.
- Zwick, D. and Dholakia, N. (2003). "Mobile Technologies and Boundaryless Spaces: Slavish Lifestyles, Seductive Meanderings, or Creative Empowerment?" H.O.I.T., Irvine, CA, April 6-8.

Impacts of Mobile Communications on the Space

Joo-Seong Hwang · Ji-Yeon Yoo

Div. of Future Information Society,

Korea Information Strategy Development Institute

Dong-Hoo Lee

Dept. of Mass Communication, University of Incheon

Mobile communications is argued to reshape and activate the existing space by increasing 'mobile communicability en route' and 'real time interaction.' This study is designed to make an empirical analysis on how different the use of a cellular phone is in each different space. In this study, the space is divided into three distinct parts including the private, social and public space. First, spatial micro-coordination and experience of polysemy of place are widely observed in the use of a mobile phone in the private space. Secondly, it is found that a mobile phone contributes to extending the scope of social contacts which in turn compliments the existing social relationship. Moreover, a full-time intimate community that is connected via a mobile phone results in reshaping the social space. Lastly, the study shows that the usage pattern of a mobile phone varies depending on the type of public space.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is envisaged to lead to more demand for the public space while facilitating the use of the public space.

Keywords: Public Space, spatial micro-coordination, polysemy of place, full-time intimate community